

2026년 12월 1일 화요일 (대림절)

시편: 24장

후렴: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며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그것을 굳히셨도다

주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이웃에게 거짓 맹세치 않는 자로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리라
이는 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주시요 전쟁에 능한 주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주께서 곧 영광의 왕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성경말씀: 이사야 49 장 8~10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혈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중보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힘써 옳은 일을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제가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남의 유익과 모여 있는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침묵하는 것이 괴롭더라도 그 침묵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요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이라고 깨닫습니
다.
침묵이 사랑이 될 때 제 영혼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2026년 12월 2일 수요일 (대림절)

시편: 36장

후렴: (생명의 샘이 진정 주께 있고 우리는 주의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악인의 죄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이다
그는 스스로 자궁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도 받지 않겠다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간계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나쁜 길을 가면서 악을 물리치지 않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까지 닿나이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공정은 깊은 바다 같아 사람과 짐승을 돌보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정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생명의 샘이 진정 주께 있고 우리는 주의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3 장 16~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중보기도:

평화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계를 굽어살피시어, 온 인류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오늘의 묵상 글:

오, 주님이시여! 믿을 수 있는 참 인격이시여! 저는 안심하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피보다는 전인격(全人格)적으로 거듭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제가 어디로 달아난들 제 속에 자기 정과 욕을 주님의 피로 속량하기 전에는 어찌 고통과 번민이 떠나겠습니까?

2026년 12월 3일 목요일 (대림절)

시편: 57장

후렴: (새벽을 흔들어서 나는 깨우리라 그리고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리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살려 주소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찌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그들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소서
그들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그들이 스스로 빠졌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든든하나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찌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찌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저 크신 주의 인자는 하늘에까지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새벽을 흔들어서 나는 깨우리라 그리고 주를 찬양하리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3 장 9~13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중보기도: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라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고, 성소를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을 받았겠습니까? 전 인류에게 가장 없는 것이 평화이고, 인류의 가슴에 가장 모자라는 것도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소유하고, 평화를 얻어 전 인류에게 그 평화를 나누어 주라고 부르셨습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뿐입니다.
사랑을 주어야 평안하지 사랑을 안 주면 평화가 없습니다.
성소의 목적이 평화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12월 4일 금요일
(대림절)

시편: 51장

후렴: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거하시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시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들이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성경말씀: 에베소서 2 장 16~18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기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인격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진실로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 그에게 울타리가 없고 적이 없습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12월 5일 토요일 (대림절)

시편: 119장 153~160절

후렴: (주의 말씀은 진실이며 주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으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탓이니라
주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원수가 많으나
나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나는 그 배신자들을 보며 역겨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진실이며 주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하나이다)

성경말씀: 이사야 55 장 6~11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중보기도:

가족의 보살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소외감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주위의 관심이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털과 같이 많은 허물을 언제나 뽑으리까? 하나 하나 해 가야만 되겠나이다.
참으로 제 허물을 뽑아 없애야 하겠나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12월 6일 일요일 (대림절)

시편: 118장 1~9절

후렴: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 장 1~8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중보기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적게 믿고, 늘 잊고, 안 믿는 죄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굳게 믿음 주소서.
연약한 자로소이다.

2026년 12월 7일 월요일
(대림절)

시편: 42장

후렴: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축제일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드높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나이다

낮에는 주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원수가 나를 비방하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늘 말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내 하나님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나이다)

성경말씀: 예레미야 14 장 8~9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사 고난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붙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붙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한 인격자가 나오기를, 한 인격이 완성되기를 위함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요령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농사란 이 땅에다가 씨를 심는 그런 농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사를 안 해도 자연히 먹게 되어있어요.
우리의 씨는 사람의 씨를 받아야 합니다.
젊은 후배들을 받아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12월 8일 화요일
(대림절)

시편: 43장

후렴: (내 기쁨 나의 즐거움이신 나의 하나님께 나아 가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헤아려 주소서
경건치 않는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서럽게 지내야 하리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만 바라라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기쁨 나의 즐거움이신 나의 하나님께 나아 가리다)

성경말씀: 이사야 61 장 10~11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중보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사적인 마음으로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날마다 세상 속에 소금으로, 희망의 불로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검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샘 같은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달을 비춰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추기 때문에 마리아는 저절로 성스러워집니다.
빛이 나고 후광이 납니다.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 관상 생활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앉아 있듯이 앉아 있는 것이 관상입니다.

2026년 12월 9일 수요일
(대림절)

시편: 77장

후렴: (하나님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새도록 쳐올린 손 지칠 줄 모르고, 내 영혼은, 위로도 마다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제 불안하여 근심하니
생각을 거듭할수록 내 정신 아찔해지나이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나는 그 먼 옛날을 회상하고
아득히 먼 세월을 되새겨 보리다
밤이면 마음 속 깊이 생각에 잠기면서
내 영혼 스스로 묻고 있나이다

주께서 우리들을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 인자하심이 영영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지 않으셨는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른손을 바꾸어 버리셨다고

나는 알고 있나이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예전에 행하신 주의 기적들 익히 알고 있나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셨나이다

주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몸소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화살도 사방으로 흩날렸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리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취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 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다)

성경말씀: 사도행전 13 장 23~27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밋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중보기도:

일치의 주님, 함께하는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적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민족, 정치, 종교, 이념을 이유로 대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제 잘못을 알게 되기 원하옵나이다.
제 잘못만 탄식하게 해 주소서.
오늘 무고한 소리와 억울한 말이 들려도, 주님 십자가 아래서 고요히 받게 해 주옵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12월 10일 목요일
(대림절)

시편: 119장 17~24절

후렴: (나는 이송에서 지나가는 한낫 나그네이오니, 제게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으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는 교만한 자를 꾸짖으시니
주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다
내가 주의 법을 지켰으니
훼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앓아 나를 훼방하였으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주의 법은 나를 깨우쳐 주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는 이송에서 지나가는 한낫 나그네이오니, 제게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성경말씀: 요한복음 3 장 27~30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중보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의 분단의 깊은 골을 치유하여 주소서. 서로가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놓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하여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홀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도 사랑에 감격되어 해야지요.

고생도 사랑에 못 이겨서이고, 고기를 안 먹는 것도 그 은혜가 더 좋아서 안 먹고요,

사치를 안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정욕을 떠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되어지는 일이고 그 사랑에 끌리는 것이 아니면 모두가 억지 짓입니다.

2026년 12월 11일 금요일
(대림절)

시편: 51장

후렴: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거하시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시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들이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성경말씀: 베드로후서 3 장 8~10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중보기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과 종교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통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56. 지지리에서 (1)

너 작고 연약한 영혼이여!
하느님의 은밀한 동산
지지리 숲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곳은 새벽부터 밤까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별빛과 달빛, 햇빛으로
주님께서 지치고 힘든 네 영혼을
숨겨주실 것이다.

(김준호 글 재편집)

2026년 12월 12일 토요일
(대림절)

시편: 92장

후렴: (의인은 주의 집안에 심어져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주여,
주를 찬송함이 좋기도 하나이다
심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전하는 일 좋으니이다
주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다

주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나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 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찌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니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주여,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흠어지리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주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할 것이로다
늘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은 주의 집안에 심어져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다)

성경말씀: 시편 18 장 28~30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중보기도:

진리의 빛이신 주님, 몸과 마음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돌보아 주소서. 저들이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55. 소화(小花) (2)

당신은 주님의 작은 꽃입니다.
이름 모를 풀들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잠시 피었다 .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이
지는 작은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13일 일요일
(대림절)

시편: 93장

후렴: (주의 법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주의 집은 거룩하나이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나이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주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 보다도
또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주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원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법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주의 집은 거룩하나이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 장 26~28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러.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보다 보편적 인류애를
먼저 생각하여 인류의 평화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우리 마음보시고 미리 잘 된다고 판정하시므로,
무슨 일 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잘 살펴야 합니다.
절대로 시작했다가 낭패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잘 생각해서 할 일입니다.
주님 뜻에 맞는 일만 하면 이미 된 것과 같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12월 14일 월요일
(대림절)

시편: 84장

후렴: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께 힘을 얻는 자 복되나이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리니,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께 힘을 얻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
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만군의 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께 힘을 얻는 자 복되나이다)

성경말씀: 아모스 5 장 4~6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벤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벤엘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벤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중보기도:

교회가 여성, 장애인, 노약자, 가난한 자,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며, 각처에서 소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질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요한복음 14장 1~2절) 네 마음속에는 하느님과 나 예수의 은총만을 넣어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 못할 죄인이 없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2026년 12월 15일 화요일
(대림절)

시편: 85장

후렴: (자비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 맞추리라)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주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 마음 주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리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리다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자비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 맞추리라)

성경말씀: 베드로후서 1 장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중보기도:

모든 민족의 주님, 다양한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서로가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로 받아들
이며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12월 16일 수요일
(대림절)

시편: 86장 1~10절

후렴: (주는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한없는 자애를 베푸시나이다)

주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입니다
주여, 나의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다
대저 주는 광대하여 기적을 행하시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한없는 자애를 베푸시나이다)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1 장 18~22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중보기도: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나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행불행(幸不幸)이란 관심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다만 건실히 마음을 무사불편(無私不偏) 정직하게 지킬 따름
입니다.
작은 불행으로 큰 불행을 막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2026년 12월 17일 목요일 (대림절)

시편: 87장

후렴: (나의 모든 샘이 주 안에 있나이다)

거룩한 산 위에 터전을 삼으셨으니
주께서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욱 즐겨 하시며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놀라운 일들이 일컬어지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의 모든 샘이 주 안에 있나이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 장 29~31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중보기도:

학교, 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바른 교육을 하게 하시고, 배움을 받는 많은 학생이 전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학교 내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나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기쁨입니다.

2026년 12월 18일 금요일
(대림절)

시편: 51장

후렴: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거하시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시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들이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성경말씀: 이사야 42 장 10~13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중보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지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섭리의 인도를 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59. 작은꽃(小花)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꽃입니다.
어느 소화는 연약한 영혼 돌보는 일을,
어느 소화는 하느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일을,
어느 소화는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일에 생을 바치는 일을,
주님은 형편 그대로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김준호 글 재편집)

2026년 12월 19일 토요일
(대림절)

시편: 119장 145~152절

후렴: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으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법을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성경말씀: 미가 7 장 14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중보기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물질만능주의에 몰두하기보다 영적인 생활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50. 그리스도,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나

몸 밖에서 그리스도와 하느님 아버지를 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은 당신의 몸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세상에 버려져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존재하는 유일한 곳은 늘 그리스도와 하느님 아버지 품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가르치신 바,
'그리스도와 하느님 아버지 안에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당신 영혼은 지금도 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영적신비입니다.

2026년 12월 20일 일요일
(대림절)

시편: 118장 10~18절

후렴: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못 백성이 이 몸을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소멸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높이 들렸으며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 장 26~33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중보기도:

국가 경영에 책임 맡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국민을 섬기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의 섭리는 빈틈이 없으시나이다.
저를 안전하고도 완전한 상태로 끌어가옵소서.
저는 저를 못 이깁니다.
주님은 제 대신 저를 극복해 주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12월 21일 월요일
(대림절)

시편: 90장

후렴: (주여,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으며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나이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간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 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 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수명이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햇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어지심이 우리 위에 내리시어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2 장 6~9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중보기도: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도, 내가 남을 어쩔까도, 내가 물질을 어쩔까도,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만일 달에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도 또한 달 같이 둥글게 반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도 하나의 달입니다.
지구도 달이라면 햇빛을 반사할 것입니다.
오! 지구와 해와 달은 본래 하나였는데 셋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빛의 가감이 있었습니다.
만일 하느님이 해라면 예수님은 지구요, 저는 달입니다.
해와 지구와 달은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햇빛은 빛과 열이 있습니다.
빛은 예수요 열은 성령입니다.
빛은 지혜요 열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2026년 12월 22일 화요일
(대림절)

시편: 101장

후렴: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내가 자비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흠 없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불의한 일을 감히 열썬하지 않으며
내 눈앞에 결코 두지 않으리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않으리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으리로다

그 이웃을 그욕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않으리로다
내 눈이 이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성경말씀: 베드로후서 1 장 19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중보기도: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즐거이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사랑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 설명을 들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물속에 잠기듯 사랑에 잠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일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12월 23일 수요일
(대림절)

시편: 108장

후렴: (하나님, 하늘 위에 나타나소서, 주의 영광 온 땅에 빛나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깟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척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지 않나이다
우리를 도와 원수를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원수를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 하늘 위에 나타나소서, 주의 영광 온 땅에 빛나소서)

성경말씀: 누가복음 1 장 46~55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홀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중보기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시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속죄의 사랑을 완성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덕분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소치라고 성경에 증언하였습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12월 24일 목요일
(대림절)

시편: 143장

후렴: (주여, 주의 영은 선하시니 고르디 고른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는 진실하고 의로우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얹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오니
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으니이다
주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주의 영은 선하시니 고르디 고른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6 장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중보기도:

노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걸 사람은 늙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마음이 정결해지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가장 깨끗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신비가 일어납니다.
극적인 은총이 임합니다.
가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난해지는 것이고, 깨끗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기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주님 없이 혼자 깨끗해지려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더 부정해집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시편: 51장

후렴: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거하시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시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들이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성경말씀: 누가복음 2 장 1~7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중보기도:

교회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92장

후렴: (의인은 주의 집안에 심어져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주여,
주를 찬송함이 좋기도 하나이다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전하는 일 좋으니이다
주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다

주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나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 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찌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니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주여,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흠어지리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주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할 것이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은 주의 집안에 심어져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다)

성경말씀: 시편 31 장 14~20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중보기도:

모든 정치인이 정의와 참 지혜를 알고 올바른 일에 더 관심과 실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모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선禪이라는 말은 한자이기 때문에 순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요한 마음입니다.
또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고요한 마음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가야 할 길입니다.
끝이 없는 길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149장

후렴: (북 치며 수금을 타며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그들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춤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리로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리로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 왕들은 사슬로, 그들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네
기록한 판단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리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북 치며 수금을 타며 주를 찬양하여라)

성경말씀: 누가복음 2 장 28~33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중보기도:

삶과 평안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 내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의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누가복음 10장 25~37절 참조)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우리의 사명이며 임께서 설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입니다.

임의 사랑은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임의 정의가 있다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임의 가슴은 둘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자비의 가슴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임에게 하신 말씀은 곧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 땅 위에서 상처받은 양들을 따뜻이 안아주는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임의 일은 예수께서 피로 사신 양들을 먹이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따뜻이 보호하여 주라고 택한 종의 일입니다.

임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29장

후렴: (주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주께 바쳐라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고 돌릴찌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경배하리로다

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뇌성을 발하니
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주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리니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주의 소리가 참나무를 비트시고 숲들을 벗기시었네
모든 민족이 그 성전에서 큰 소리 높여 영광이여 하고 외치도다

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고
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성경말씀: 창세기 28 장 10~1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중보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적인 역사에 성도들이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예로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 실천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폐병이나 문둥병보다 몇 만 배나 흉측스럽고 더러운 병, 죄의 병, 마음의 병을 영혼을 썩히는 심각한 병을 고쳐 주소서.
주여! 주님의 보혈 이외의 것으로는 도저히 씻어지지 않는 이 병의 뿌리를, 낫게 하소서.
빼내 주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33장

후렴: (주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 깊은 생각은 영원하시다)

너희 의인들아 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수금으로 주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하리로다

새 노래 불러 주를 찬미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리로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시도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세상에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김으로 이루었도다

주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에 사는 자 모두 다 그를 경외하리로다

주의 말씀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생겨났고
주의 명령 한 마디에 제 자리를 잡았나이다
주께서 열방의 계획을 홀으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토록 한결같고
그 깊은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들아
하나님의 기업으로 뺄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여
모든 인생을 두루 다 보시도다
복되도다 그를 주로 삼은 백성들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지켜 보시도다

그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된 것이니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도다
주의 눈이 주를 두려워하는 이들 위에 있나니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주소서

그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기근시에 살게 하시도다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나니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 깊은 생각은 영원하시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3 장 16~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꿀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열두 제자가 머리 다툼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높다는 것은 뱀입니다.
하느님을 제쳐 놓고 아담과 하와가 왕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인류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서운 마귀입니다.
우리들은 성인 성녀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119장 9~16절

후렴: (나는 주의 규범을 묵상하고 주의 도를 깊이 생각하리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겠노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는 주의 규범을 묵상하고 주의 도를 깊이 생각하리다)

성경말씀: 시편 146 장 5~10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뜻을 따라 복음전파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내가 죄 지어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심은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의 피로 죄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도 풍성하심은 죄 지으면 주님의 마음 더 괴로워하심이로소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12월 31일 목요일
송구영신

시편: 48장

후렴: (하나님이여,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자비를 생각하나이다)

주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찬송하며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리니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음이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불어내시니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그대로 우리가 보았도다
만군의 주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리로다
너희는 시온을 익히 보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자비를 생각하나이다)

성경말씀: 요한1서 3 장 16~20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중보기도: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실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님과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늘 실수만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 주옵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30. 거룩한 가난

하느님 아닌
세상을 탐하는 것은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하느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탐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가슴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탐욕이 제거 된 삶에
하느님의 거룩한 가난을 이룩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이 복된 영적 가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